

큐레이터 여러분께,

편안한 휴일 마지막 밤을 깨트려 미안합니다.

일부 언론매체와 관람객이 한글 설명이 없어 여전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오프닝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시장 바닥에 이해를 돕는 핵심 내용을 레터링으로 부착하고자 합니다.

첨부하는 문건은 부착용 텍스트입니다.

- 1) 신은기, 김승범 선생님 검토 수정 부탁드립니다.
- 2) 안기현, 정이삭 선생님 제작 및 출력 (TEXT, 뷰크리에이티브 ?) 방법 제안 부탁드립니다.
- 3) 정다은씨 부착 예산, 설치 인력 등 고민해 주세요.
- 4) 이영주 과장님, 전시장 문을 닫는 월요일에 부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관람객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부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 이후부터 야간 작업 무리인가요?)

오프닝을 무사히 치른 것 같아 다행입니다. 문을 닫을 때까지 많은 건축인 대중들과 소통하는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감사 드리며,

김성홍드림